

北, ICBM 탑재 핵탄두 소형화 성공했나

미국 언론 동북아 안보 '게임체인저' 촉각... 트럼프, 대북 제재 실효성 없어 전전긍긍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8일(현지시간) 전해지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미 언론들은 이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이 개발 중인 핵탄두 ICBM이 미 서해안까지 도달하려면 사거리 연장을 위해 탄두 무게를 줄이는 소형화 기술과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 등 두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 WP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마지막 남은 두 가지 난제 중 하나를 이미 해결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재진입체 기술만 확보한다면 북한의 ICBM은 미국의 안보를 실전에서 위협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의 명실상부한 '게임체인저(game changer :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北, 핵ICBM 보유 현실화 목전 =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소식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ICBM을 이르면 내년 실전 배치할 것으로 DIA가 판단했다는 WP의 최근 보도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북한이 이르면 내년 미국 서부의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도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핵탄두 ICBM을 실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北 ICBM, 왜 게임체인저인가 =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ICBM이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역대 안보 상황은 물론 미국의 동아시아 역내 동맹국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북한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ICBM이 '새로운 위협'은 아니지만,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extended nuclear deterrence)'을 크게 훼손한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해올 경우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보복할 것이라는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 역시 북한에 군사력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 변화는 미국의 방어망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신뢰를 약화하고, 이는 다시 한미 동맹, 한미일 삼각동맹

의 약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위치와 군사적 영향력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북한의 핵 ICBM 보유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도를 훼손하고 미·중의 세력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는 것은,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저지에 미온적이었던 이유와도 무관치 않다.

◇트럼프 WP 보도 사실상 인정...군사력 사용도 시사 = 뉴저지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여름 휴가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더 위협한다면) 지금껏 전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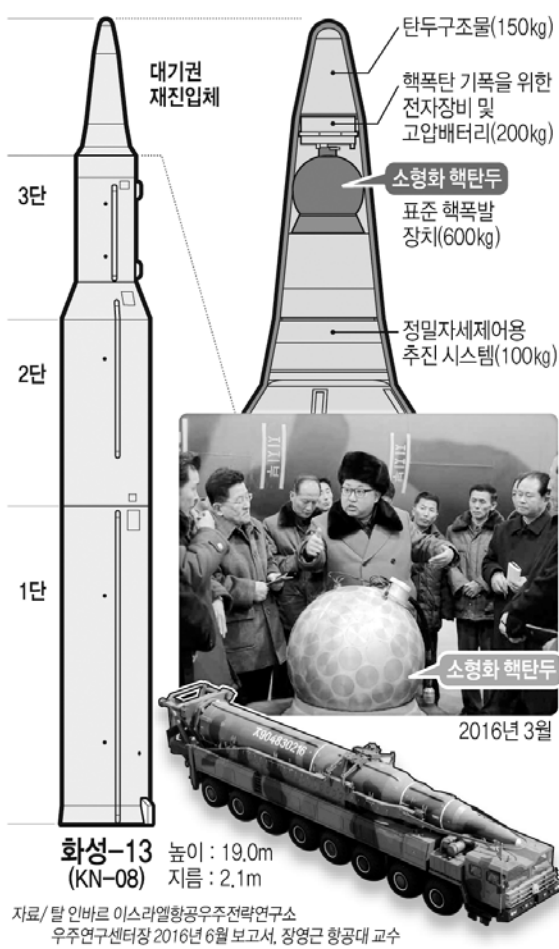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을 더 진척시키지 말라는 노골적 경고를 한 것이지만, 이처럼 즉각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은 DIA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대통령이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도 있다는 공개 경고를 했지만, 실제로 미국이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혈맹인 한국의 민간인 희생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주한미군과 한국 거주 미국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 정부 고위 관리들도 의회를 비롯한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군사옵션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도의 1차 목표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권 수호'를 위한 억제력 차원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만큼, 군사 옵션처럼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대응까진 아닐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군사옵션 사용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막을 묘수가 없다는 점이다. 유엔이 최근 미국 주도로 추가 제재안을 내놓았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원유 수입 금지에 실패한 것은 이번 유엔 제재안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북한 ICBM 탑재 핵탄두 소형화 성공



화성-13 (KN-08) 높이: 19.0m 지름: 2.1m

자료/ 탈 안바르 이스라엘항공우주전략연구소 우주연구센터장 2016년 6월 보고서, 장영근 항공대 교수



8일 밤 중국 쓰촨성 주자이거우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집채만 한 바위가 지진으로 굴러 떨어져 덮치는 바람에 이 곳을 지나가던 버스가 크게 파손됐다. /연합뉴스

중국 쓰촨성 7.0 지진...19명 사망·여행객 100여명 고립

한국인 관광객 모두 대피한 듯

중국 쓰촨성 유명 관광지인 주자이거우(구채구) 현에서 8일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1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진으로 인해 여행객 100여명이 고립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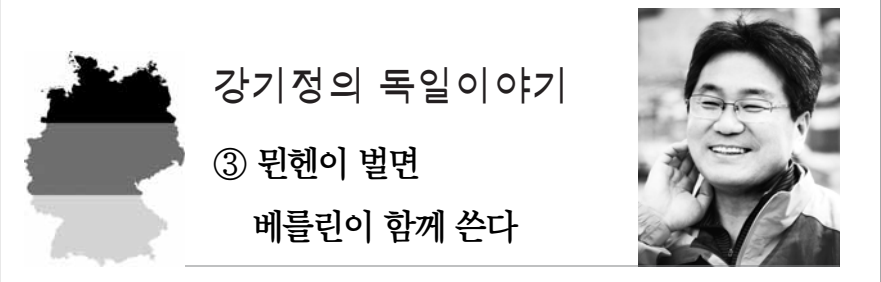
9일 주자이거우 현 구조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9분(현지시간) 쓰촨성 아바주 주자이거우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19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쳤다. 한국인 관광객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자이거우 간하이즈 인근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100여명의 여행객이 고립된 상태다. /연합뉴스

아바주는 지진 발생 후 1급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해 아바주 책임자들이 모두 현장으로 출동했다. 지진 발생지에서 직경 20km 범위 내 2만1000명, 50km 6만3000명, 100km 내 3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자이거우 현 내 호적 등록인구는 6만7945명이지만, 유명관광지인 탓에 유동인구가 많아 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주자이거우의 지난 8일 방문객 수는 3만 8799명으로, 단체 관광객 1만8158명, 개인 관광객 2만641명으로 집계됐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사상자 중 한국인 관광객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상황은 추가 구조작업이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기정의 독일 이야기 ③ 뮌헨이 벌면 베를린이 함께 쓴다

독일은 자타가 공인하는 맥주의 본고장이다. 뮌헨의 헬러스와 뉘켄, 베를린의 베를리너 바이세, 뒤셀도르프의 알트비어, 쾰른의 쾰시비어 등 지역적 품미를 지닌 1400여개의 맥주공장이 독일 전역에 있다.

지방이 살아있다

어디 맥주뿐인가. 주요 관청과 기업체도 어느 한 지역에 편중돼있지 않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갈스루헤에, 연방중앙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 철도 트가르트는 자동차산업이 중심이다. BMW는 뮌헨에, 폭스바겐은 볼프스부르크에, 아우디는 넉스스울름에, 지멘스는 에를랑겐, 바이엘은 레버쿠젠

만났다. 베를린 재정책임자 베르하르트(Bernhard Speyer)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모든 세금에 대해 동등한 조세 주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세원 배분도 지방정부가 53%, 연방정부가 43% 수준이다. 또한 헌법 107조 2항에 근거한 지방재정조정법을 통해 잘사는 주가 못사는 주의 재정 일부를 지원한다. 연방 전체는 동등한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기초해 뮌헨이 번 돈을 베를린이 쓸 수 있게 하는 지원시스템이다. 미국 루이지애나주는 쪽 가난한 주로 남아있지만, 베를린과 니더작센은 해마다 불균형을 극복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그는 법의 효력을 설명했다. 이는 통일에도 큰 몫을 했다. 동서독은 통일 이전부터 98개 도시들이 결연을 맺고 파트너 도시들을 지원했다. 통일 후엔 854개

국가기능 지방 분산이 발전의 원동력

에 본사가 있다. 이같은 국가기능의 고른 분산은 지난 50년간 독일이 추진해 온 '지역발전'을 근간으로 한 국가 발전전략이다.

지방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로 박람회 들 수 있다. 필자도 베를린 가진박람회, 뮌헨 전기차박람회, 프랑크푸르트와 파리 모터쇼, 하노버 상용차박람회, 쾰른 가구박람회, 함부르크 풍력박람회 등을 직접 둘러봤다. 규모도 엄청나지만 대부분의 박람회가 1년 전에 부스 예약이 끝난다. 세계 비즈니스를 선도하고 그 자체가 커다란 수입원인 세계적 규모의 박람회 가운데 3분의 2가 독일에서 열리는데, 이 역시 독점하는 지역은 없다. 경제 수도인 뮌헨, 교육도시 하이델베르크, 금융수도 프랑크푸르트와 문화와 행정 중심지 베를린, 섬유 패션 중심지 뒤셀도르프 등 10여개 도시에서 각기 특성에 맞는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역시 베를린 연방정부가 중보 개최나 솔림이 없도록 섬세하게 조정한 결과라 한다.

부자 추가 못사는 주 재정 지원

필자는 지방분권의 핵심요체인 지방재정권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베를린과 함부르크의 재정담당자를 직접

연대와 상생이 통일의 기반

해택을 주는 주에 속하는 함부르크 시 재정조정관 게르노트(Gernot Norbis)의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부자 주 정부는 분담금을 덜 내려고, 수혜를 받는 주는 더 많이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16개 주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간단치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권한과 연대에 관한 법은 독일발전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그는 강조한다.

우리의 지방지치는 어떠한가. 중앙 정부가 대부분의 권한을 쥐고 있다가 지방에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중앙에서 돈을 끌어오는 것이 단체장의 최고 능력이 돼버렸다. 다행히 새 정부가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지방분권의 신호탄이 타진 만큼 지방정부도 달라져야한다. 지역 정체성을 회복해갈 주도적인 성장플랜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새 시대를 광주가 리드해야 한다. <정치인·전 국회의원>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삼성화재인근 중심상가

조청가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지	근린시설	공장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정가 1,227,000,000 최저가 859,000,000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781평 건물518평 감정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장성 삼계면 주산리 백산마을인근 토지 176평 건물111평 감정가 387,000,000 최저가 271,000,000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420,000,000
▶광산구 박호동 임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200평 감정가 192,000,000 최저가 192,000,000	▶나주 왕곡면 송죽리 계획관리지역 분포 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대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상무지구 중심상권 커피전문점 6층건물 1층 50평 5천만원 원 350백 시설비 9천 조정가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면사무소인근 자연녹지 도시계획구역 토지 218평 감정가 34,000,000 최저가 34,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업종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록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마록동 연화아파트 입구 126평 매매가 5억2천	▶서구 마록동 상무한신휴먼시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물관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원료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